

평창 올림픽 겨냥 '롯데카드 웨어러블' 3종 나왔다

스티커·배지·글러브 형태...동계올림픽 사상 최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인 비자(Visa)는 롯데카드와 손잡고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의 고객 착용 결제수단인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Wearable)' 3종을 선보였다.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은 몸에 붙이거나 착용할 수 있어 소지가 간편하다.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한 NFC 기술을 탑재해 결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고객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태극기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스티커형(신용카드 4종, 선불 8종), 배지형(4종), 글러브형(1종) 등 크게 3가지 형태다. 선불카드 권종은 3만원에서 20만원권까지 다양하다.

이들 결제용 웨어러블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에 전체 메뉴(경기장) 및 공식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계올림픽대회가 종료된 후에는 EMV 규격 NFC 결제가 가능한 국내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 스티커와 배지는 11월 9일부터 소공점을 비롯한 5개 롯데백화점 내의 카드센터 및 롯데카드 웹사이트(www.lottecard.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림픽 기간에는 웨어러블 3종 모두 강릉 올림픽 파크 및 평창올림픽 플라

자에 있는 공식 슈퍼스토어 내 자판기에서 살 수 있다.

자판기에서 Visa 롯데카드 웨어러블 스티커는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이 충전된 형태로 판매된다. 배지와 글러브형은 3만원, 5만원권으로 출시된다.

구입 및 이용 관련 문의는 롯데카드 고객센터(1588-8100)로 하면 된다.

평창올림픽 웨어러블 카드를 독점 발급하는 롯데카드는 지난해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붙이는 웨어러블 카드인 '롯데 스티커카드'를 선보인 후 45만 장 이상 발급하는 등 웨어러블 카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사람을 위한 카드의 기술'을 모토로 웨어러블 카드를 스티커형에 이어 팔찌, 휴대용 액세서리 등의 패션 제품으로 확대하는 등 카드 소지와 사용을 한층 간편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창권 대표이사는 "롯데 스티커카드로 웨어러블 카드 시장을 선도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림픽을 보러 오는 세계인들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해 ICT 평창올림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